

올 쌀 생산량 38년만에 최저...전남 8% ↓

폭염·태풍에 작황 부진...전국 387만5천t 전년비 2.4% 줄어
전남 15만5천ha 등 재배면적 감소도 원인...산지 쌀값 상승

올해 쌀 생산량이 38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예측됐다.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작황 부진과 벼 재배면적 감소가 원인이다. 17일 통계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92.9% 기준 387만5000t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397만2000t보다 2.4% (9만7000t) 감소한 것으로, 이상 기후 여파로 355만257t에 그쳤던 1980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적다. 올해 쌀 예상생산량 감소는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으로 타격을 전환이 늘

면서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데다, 난해이 형성되는 시기에 폭염과 잦은 강수로 작황 부진까지 겹친 때문이다. 올해 쌀 재배 면적은 73만8000ha로 지난해 (75만5000ha)보다 2.2% 감소했다.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 15만5000ha로, 지난해보다 6429ha(4%)나 줄어들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사·도 중 벼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줄어 쌀 생산량 감소도 다른 지역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8월 하순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강수량이 늘어나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등 등숙기 기상여건이 나빠 쌀 완전 낱

알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벼 포기당 이삭 수, 이삭당 벼알 수가 줄어 쌀당 벼알 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보다 단위면적당 8% 안팎의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2만t이었던 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올해는 80만t을 밑돌 것으로 보이며 10a당 생산량도 지난해 508kg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산지 쌀값과 신곡 매입가는 전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지 쌀값(80kg)은 1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9.1%나 상승했다. 신곡 매입가(벼 40kg)도 6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8%나 올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쌀 예상 생산



량은 통계청에서 발표하겠지만 작황 저조와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는 도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북미회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은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우리는 만남을 가질 것이지만,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왜냐면 (중간선거 때)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머물면서 (공화당)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아직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미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는 그것(미국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결국에는 미국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과 북한을 오가는 ‘셔틀 외교’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6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비행모델(FM)을 공개했다. 시험발사체는 누리호에 쓰이는 75t급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이상 발견” 누리호 엔진시험발사체 ‘25일 발사’ 못한다

과기부·항우연 “추진제 가압계통 문제...발사일 다시 결정”

오는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이던 ‘누리호’ 엔진시험발사체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다. 발사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예정된 발사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17일 제2차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지난 16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이용한 발사 점검과정 중 추진제 가압계통의 압력 감소 현상을 확인했다. 추진제 가압계통은 연료와 산화제를 탱크에서 엔진으로 넣어주기 위한 가압장치로 현재 원인 분석을 위해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발사대에서 내려 조립동으로 이송된 상태다.

엔진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시험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지름은 2.6m, 무게는 52.1t이다. 과기부와 항우연은 다음주 초까지 원인을 분석한 뒤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다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펀 전남 경제효과 14조·일자리 8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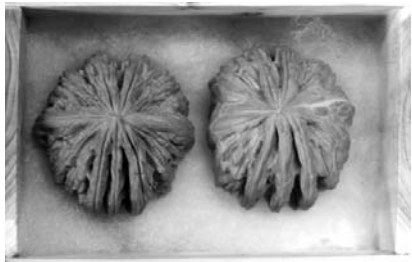
평화당 윤영일 의원 “전국 경제효과 43조원·33만개”

서울~제주 간 KTX(해저고속철도) 건설 시 43조원의 경제효과, 3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7일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36조6000억원, 임금유발효과 6조5000억원 등 약 43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선 생산유발효과 12조3990억원(33.9%), 임금유발효과1조7937억원(27.6%) 등 경제효과와 14조1927억원(33%), 고용유발효과 8만2654명(25%)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에선 생산유발효과 9조9959억원(27.3%), 임금유발효과 2조8700억원(44.1%) 등 경제효과 12조8659억원(30%), 고용유발효과 9만4778명(28.6%)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땅끝마을을 거쳐 제주로 직결되는 노선으로 서울~제주 KTX 개통 시 수도권-제주 간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 66.7%, 항공 33.2%, 선박 0.1%로 나타났다. 전국-제주 간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 54.5%, 항공 41.5%, 선박 4.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수도권-제주 간 분담률은 항공 99.5%, 선박 0.5%, 전국-제주 간 분담률은 항공 95.3%, 선박 4.7%이다. 윤영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래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제주 간 KTX건설은 전남과 제주가 상생 발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조속히 착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제주 KTX건설사업은 목포에서 제주까지 180km 구간을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잇는 사업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300년 된 나무서 7각 호두 또 나와 ‘한 쌍 완성’

수령 300년 된 호두나무에서 일곱 조각으로 갈라진 희귀한 7각 호두 한쌍(사진)이 나와 화제다. 17일 전남 장흥귀족호도박물관에 따르면 2015년 한 호두나무에서 7각 호두 한 알이 나온 이후 최근에 같은 호두나무에서 7각 호두 한 알이 나왔다. 지압용으로 쓰이는 호두 알은 두 알이 한 쌍이 되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번에 비로소 짝을 맞추게 됐다. ‘호두’가 표준말이지만 장흥에서는 한자에서 유래한 ‘귀족호도’를 상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귀족호도는 식용 호두와 한국산 토종 호두인 ‘가래’가 자연 교배돼 만들어진 특이한 품종이다.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아 껍질이 망치로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지압용으로 그만이다. 귀족호도는 보통 두 조각으로 갈라진 양각이 대부분이지만, 이처럼 7조각으로 갈라진 7각 호두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7각 호두는 높이가 4.5cm, 좌우 길이가 4.3cm로 두 알이 한 손에 알맞게 들어온다. 귀족호도박물관에서 전시중인 귀족호도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6각 호두로 1억원에 달한다. 김재원(59) 귀족호도박물관장은 “2012년 태풍 불라벤에 쓰러진 300년 된 나무가 힘겹게 귀한 선물을 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은 다음달 4일 귀족호도의 날에 7각 호두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매매

- ▶ 고흥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벌링크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벌링크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웅복한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파격가 임대!! ▶ 권리금 없이 시세로 임대
(전세가능)

-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약국, 편의점, 안경점 등
-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피치학원, 입시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중 호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직함)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의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의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의 매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찰맞남골묘 1300기 토지3만6천㎡ 매매가 8억5천만원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정부공개가) 용자 28억원포함 매매가35억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